



세금은 세무사에게!  
재무진단은 세무사에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도  
세무사에게!

# 세무시신문

제 795호  
2021년 5월 3일(격주간)  
전문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처 한국세무사회 / 발행인 원경희 / 편집인 유재만 / (06660)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 전화(02)521-9455 / 팩스(02)597-2944 www.kacpta.or.kr

## 한길주식 소유 4,491명 회원 중 4월 30일 기준, 2,666명 회원 80,263주(출자원금 20억원) 양도 신청

미신청 회원(2천여명) 6월 4일까지 신청해야 반환받을 수 있어 ... 6월 8일부터 출자원금 지급

원경희 회장, “한길TIS 주식 향후에는 매입하지 않으므로 수익목적 소유 회원은 신청하는 것이 좋아”

김완일 서울회장, “회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한길TIS 출자금 반환해주는 원경희 회장에게 감사하다”



지난 3월 23일 한길TIS 제12기 주총에서 원경희 회장(한길TIS0이사장)이 회원에게 출자원금 그대로를 반환하는 안건을 의결시키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원경희 회장이 ‘한길TIS에 출자한 회원들에게 출자원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면서 한길TIS는 지난달 8일부터 세무사 회원 주주에게 출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주식양도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길TIS에 주

식양도신청을 한 회원은 2,666명으로 한길TIS 주식을 소유한 전체 4,491명의 회원 중 59%가 신청했다. 주식수로는 80,263주이고 출자원금으로는 2,005,900,000(취득가액 총액)에 2,978,675,000에 67%에 이른다.

아직 주식양도를 신청하지 않은 약 2천

명의 회원들도 신청서를 제출해 출자원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주식양도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세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보유 주식을 확인하고, [공지사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기명날인 한 후 한길TIS에 팩스(0508-118-0053)나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7(서초동, 예성빌딩 4층) (주)한길티아이에스 사업관리팀/우편번호 06650)으로 송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신청서는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경우까지만 유효하다.

6월 4일까지 주식양도신청을 완료한 회원들에게는 6월 8일부터 즉시 출자원금을 지급한다. 1주당 25,000원으로 출자원금 그대로를 반환하며, 신청서에 적은 본인의

계좌로 송금된다.

원경희 회장은 “회원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한국세무사회와 한길TIS를 믿고 기다려준 회원들에게 출자원금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주주인 회원들 중 이미 절반이 신청했고, 남은 절반의 회원들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서 출자원금을 온전히 돌려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반환받지 않고 소유를 생각하는 회원들은 향후 한길주식 매입에 관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출자원금 그대로 전부 반환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 14면 한길 자사주 매입 관련 Q&A
- ▶ 16면 인터뷰 출자금반환 공약 이행한 원경희 회장에게 감사

## 국민의힘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불참함에 따라 ‘세무사법 통과, 5월로 이월’

세무사법 통과시키기 위해 세무사법만 심의하는 원-포인트 기재위 조세소위 4월 22일 개최

국민의힘, ‘종부세법 심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도 심의하지 않겠다’며 불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국민의힘 불참 따라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세무사법 통과 불발

SBS-TV, KBS-TV,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 ‘국민의힘이 종부세법으로 발목 잡았다’고 보도

원경희 회장,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5월에는 통과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원경희에게 변함

없는 지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창현 감사,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세무사법개정안 반대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예상되자 국민

의힘 조세소위 위원들 주호영 원내대표 눈치보며 종부세법 빌미로 불참한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부세법을 심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도 심의하지 않겠다”며 지난달 22일에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세무사법 통과는 5월로 이월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세무사법

을 4월에는 처리한다는 지난 3월 16일 조세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만을 원-포인트로 심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지난달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초 합의한 바를 뒤

집고, 갑작스럽게 “종부세법도 세무사법과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부와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종부세법은 5월에 논의하고 4월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당초 합의한 대로 세무사법만을 심의하자”며 국민의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10시에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당일 오후 2시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3면에 계속